

2017.03

암환우와 함께하는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



(En)australianhospice.com.au (Kr)sydneyhospice.com.au • Email:australianhospice@gmail.com • Mob: 0430 370 191 / 0416 758 272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 /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6th Concert (Jan. 20 2017)



7th Concert (Feb. 20 2017)

이달의 말씀 (The Word of God):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걸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풀려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피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매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사야 58:6-11). "Is not this the kind of fasting I have chosen: to loose the chains of injustice and untie the cords of the yoke, to set the oppressed free and break every yoke? Is it not to share your food with the hungry and to provide the poor wanderer with shelter -- when you see the naked, to clothe him, and not to turn away from your own flesh and blood? Then your light will break forth like the dawn, and your healing will quickly appear; then your righteousness will go before you, and the glory of the LORD will be your rear guard. Then you will call, and the LORD will answer; you will cry for help, and he will say: Here am I. "If you do away with the yoke of oppression, with the pointing finger and malicious talk, and if you spend yourselves in behalf of the hungry and satisfy the needs of the oppressed, then your light will rise in the darkness, and your night will become like the noonday. The LORD will guide you always; he will satisfy your needs in a sun-scorched land and will strengthen your frame. You will be like a well-watered garden, like a spring whose waters never fail. (Isaiah 58:6-11)

월간 • 145호
Monthly Issue 145

Address: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2122, PO BOX 615 Lidcombe NSW 1825/ Publisher: Rev. Jang Dae Kim



암환우와 그의 재할을 돕는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

2017

03

C · O · N · T · E · N · T · S

02 피토케미컬
[phytochemical(s)]
- 5가지 색깔 음식 먹기

06 호스피스(SICA)활동

07 회계 자료

표지 사진설명



제6차/제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는 모든 거주민들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너싱 홈에서 모든 봉사자들이 한국전통가락인 "홀로 아리랑"을 부르면서 한국민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ACC/SICA 호스피스 봉사자들의 멜로디는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어려움을 공유하는 하나의 인류공동체를 느끼게 하였다.

제6차 콘서트 (Estia Health Nursing Home, 2017.1.20)

제7차 콘서트 (Woodlands Nursing Home, 2017.2.20)

피토케미컬 [phytochemical(s)]

- 5가지 색깔 음식 먹기

피토케미컬은 식물을 뜻하는 영어 피토(phyto)와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chemical)의 합성어이다. 식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화학물질을 아우른다는 뜻에서 복수형으로 쓰기도 한다. 이미 알려진 피토케미컬에는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아스피린, 말라리아 특효약 퀴닌,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하는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등이 함유되어 있다. 각종 과일과 채소에는 플라보노이드, 녹황색 채소에는 카로티노이드, 마늘과 양파에는 황화합물의 일종인 알리신 등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채소나 과일의 피토케미컬은 화려하고 짙은 색소에 많이 들어 있는데, 색깔별로는 붉은색·주황색·노란색·보라색·녹색에 많이 들어 있다. 그 밖에 흰색을 띠는 마늘류·버섯류, 검은색을 띠는 콩류·곡물류에도 피토케미컬이 들어 있다 그래서 약 10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항암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식품 중에 '5-A-Day'라는 운동이 유행하고 있다. 하루에 다섯 가지 색깔의 야채나 과일을 골고루 먹자는 운동이다. 채소나 과일의 색깔별로 각각의 기능이 있고 그 가운데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는 것 보다는 곁에 있는 색깔을 보고 골고루 드시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 특히 성인병을 무려 30%나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면 항산화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피토케미컬을 섭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식품을 골라야 하는지 살펴 보겠다. 특히 색깔들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곁에 나와 있는 색깔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먹는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를 보고 색깔을 구분하게 된다. 토마토나 시금치 같은 것들은 무슨 색깔인지는 알겠지만 수박 같은 과일은 곁에는 푸르지만 속은 빨간색이므로 빨간색이 바로 수박의 색깔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섭취하면 된다. 이 Five A Day는 특히 한방에서 이야기 하는 오행과 서로 비슷한 것들이 있다. 첫번째, 청색이라고 우리가 오행에서는 얘기하지만 녹색식품이라고 보면 된다. 대개 시금치나 오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상추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 녹즙이나 녹차와 같은 것들을 드시면 시력도 좋아지고 특히 간에 좋다. 그래서 해독작용에 좋고 간장병으로 오래 고생하는 분들이 녹즙이나 녹차를 먹고 많이 회복되는 경우를 볼 때 간에는 녹색 채소가 좋다. 두 번째는 오행 중에 적색인데, 적색은 흔히 피와 같은 색이므로 심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적색 식품들을 드시면 대개 소변기능도 좋아지게 되고 심장의 기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는 것도 볼 수 있다. 대개 딸기나 토마토 같은 채소들이 있는데, 그래서 토마토 매일같이 아침마다 주스로 갈아서 한잔씩 드시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그런데 이 토마토는 사실 날 것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다음으로는 황색식품이다. 이 황색은 소화기계통과 관계가 있는데, 감자, 구마, 옥수수, 바나나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이런 것들은 대개 영양과 관계가 있고, 특히 면역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네 번째는 백색이다.

편집실 시드니호스피스

백색식품에는 배라든지 양파, 마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호흡기 계통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기침이 심한 분들은 배즙을 중탕을 해서 드시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배를 잘라서 씨를 뺀 다음에 그 가운데 꿀을 넣고 이것을 중탕을 해서 드시면 만성 기침에 좋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흑색식품이 있다. 흑색 또는 자주색인 가지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고, 또한 검은색의 검은콩, 검은깨, 그 다음에 검은 쌀. 이 세 가지를 미숫가루 처럼 해서 만들어 드시면 특히 골다공증이라든지 비뇨생식기 계통의 기능들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청, 적, 황, 백, 흑의 다섯 가지 색깔의 식품들을 골라서 골고루 하루에 하나씩은 섭취를 하게 되면 성인병이 완화된단다. 특히 암을 예방하는데 좋다. 이런 것을 볼 때 음식은 어느 한 것에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섭취하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피토케미컬의 음식이나 식품에는 비타민과 무기염류가 풍부하고 암예방, 항산화작용,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염증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약품이나 식품 원료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위) 제6차 호스피스 콘서트 (첼로 연주하는 꿈나무 Christopher Lee 와 그의 가족

아래) 제6차 호스피스 콘서트 (기타를 연주하는 정진석 봉사자와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의 아들 정다하

제 2 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생 모집 공고

호주호스피스협회/시드니 호스피스(ACC/SICA)에서 제2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한국 대구 동산의료원에서 아래와 같이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암환우를 사랑하며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실제 봉사하실 분
- 모집기간: 2017년 2월20일~4월10일
- 모집인원: 15명(선착순)
- 등록비: 무료 (숙박과 식사 제공 및 의료 선교지 방문)
- 항공비: 본인부담
- 교육기간: 2017년 4월25일(화)~4월28일(금)
- 교육장소: 대구동산의료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56,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특별혜택: 본 교육과정은 한국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 수료증과 호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수료증을 받습니다. 본 과정 자원봉사자교육을 수료한 분 중에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1개월간 인턴과정을 마치고 Verification of Voluntary Work를 Centrelink 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회 Home Page에 공지되었습니다. ([Http://www.sydneyhospice.com.au](http://www.sydneyhospice.com.au))

연락처: 0430 370 191/0416 758 272 (대표 김장대)

Nursing Care Diary

Hyong Chul Jang(Poetry, Essay)

Di Ding, Di ding~ (Alarm sounds) *** The phone's alarm went off at five in the morning. I ready myself to cut the buds of the wheat to prepare a meal with wheat juice. I had carefully raised the wheat by giving it a lot of my time the day before. Sometime later my wife gets out of bed. She took out some vegetable water and some mushroom soup. My wife has cancer. She holds the cold soup waiting for it to reach an acceptable temperature as she does not deal with cold food well. We do our morning prayers before my wife is ready to eat. For anyone whose badly sick, seeing the same sun the day before rise again today makes them thankful and joyful in many ways. In some ways, the light is a privilege enjoyed by the living, and it's the hand of life that helps both the healthy and the sick. It's usually the during the morning that the sun's light will strengthen us humans for the whole day. I knead the flour on one side of the kitchen and on the other side, on a frying pan I cook a handful of tomatoes which are said to be rich of lycopene antioxidant. I also prepare some apples in the midst of my cooking. Drinking the wheat juice first thing in the morning isn't the most pleasant thing my wife does every day, but is considered to help a lot when you are trying to treat yourself from cancer. After drinking the juice, the day finally begins with some porridge and rice.

My wife is currently undergoing treatment for ovarium cancer. From 2013 my wife had a terrible stomach ache. We went to Sydney's general hospital and had her checked up by several specialists but the source of the abdominal pain wasn't found. My wife was insisted by the doctor to cut off her appendix due to some abnormalities with it. After that I found out that the amount of x-ray shots taken for it eventually became very heavy to have around. My wife started to feel very uncomfortable around her ovary. We decided to take an MRI test to see what the problem was and the results shown that there was a lump in her ovary 10cm bigger than normal. We were advised to see a gynaecologist to start an operation on my wife. Surprised and anxious my wife and I went to a hospital that had a gynaecologist. Upon arrival, the gynaecologist at the time was convinced that what my wife could have had anything but cancer as ovary cancer shouldn't hurt the diagnosed. The gynaecologist did say however that he will still do an operation to cut the 10cm extended lump off using laparoscopic surgery believing that in doing so will treat my wife. However, the abdominal pain did turn out to be ovarian cancer in its third stage. I could have never predicted that someone in my life would have cancer. It is said that when you are sick, you have a cause and you must find that cause to have no regrets. With that you can prevent most situations that threaten your happiness. It should've been objectively confirmed that my wife did not have cancer or a bigger disease from the start for my wife would not have suffered due to being unprepared and unknowing of what to expect. One of the things my wife could not comprehend is the reasoning behind her disease and why God wanted things like this. We are both Christian, we both follow the Bible and we enjoy sharing its contents. "It is God's will that you should be sanctified. (1 Thesalonians 4:3)" I wondered what is holiness. I constantly think about the answer for holiness.



위) 제7차 호스피스 콘서트(홀로 아리랑 합창)
아래) 2017년 2월 11일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행사 중 참여자들이 수영하는 동안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줍는 호스피스 어머니와 봉사자 (February 4, 2017 Hospice Mother and volunteer picking up trash at the beach while participants swim during the beach walk event with Cancer patients)

To overcome and fight cancer, it is important to increase immunity above all else. No patient can be fully treated with chemotherapy, anticancer drugs and other forms of therapy without changing their life to work against the cancer. Surfing the internet for cancer treatments will get you many results that you'd want to try. Upon searching the internet, natural remedies always seem like an attractive treatment method. With that said however, there are many other treatment methods on the internet that are comparable to dreams. My wife chose to use moxibustion, a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herapy which is said to stimulate blood flow and wanted to forest bathe in the deep valleys of the blue mountains. Between the two we tried to do one of them, once every day. Though it was difficult and tiring, the forest bathing restored my wife's spirit no matter how tired her legs would become. We tried to get the moxibustion and the forest bath done in the morning as people diagnosed with cancer are prone to fatigue a lot quicker during the afternoon than a healthy person. It is believed with Christians that praying and believing in God will strengthen what was once a weak immune system to a stronger immune system. If you listen carefully to the LORD your God and do what is right in his eyes, if you pay attention to his commands and keep all his decrees, I will not bring on you any of the diseases I brought on the Egyptians, for I am the LORD, who heals you. (Exodus 15:26)

On the days, my wife practices moxibustion she also exercises at the park. After exercising she drinks carrot juice in the afternoon. If the carrot is not organic, we take steps to remove the harmful parts of the carrot and then it is ingested harmlessly. We try to do our very best in everything for the safest recovery but we also give ourselves some leeway so not to overwhelm ourselves with stress. We also try to pursue low salt, sugar free and de-chemicalising products but the food we eat constantly has one of the three things we didn't want. What can we do? So, we ask God. Though we asked God our questions deep I think we both knew that we just have to make do with what we've got and go forward with what we find. To this day, every time I look at my sick wife, I regret my long past of when I had left her to do the house work and prepare the food every day since we were together. I also regret not being there with my wife when she needed me to relieve some stress and talk together. At this stage of my life, I value my wife's life so much more than my own. I worked, unfamiliar to the basics housework and cooking but my wife depended on it, so I work hard and each time I make a successful meal or clean the house as well as my wife, I am happy and comfortable every day. I'm confident of my wife's strength today that she will also see the same sunrise I'll see tomorrow.

DONATIONS

Do not withhold good from those who deserve it, when it is in your power to act. (Proverbs 3:27)

Bank Name: Westpac Bank

Account Nam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ccount Number: 032-069-53-7515

<< ACC/SICA 호스피스 알림 >>

ACC/SICA 호스피스에서는 암 환우와 그의 재할을 돕기 위해 봉사자들과
매주 토요일 바닷가 걷기를 하고, 또한 암환우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특별중보기도회를 갖고,
예약 상담 및 전화 상담, 그리고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환우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찾아가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CC/SICA 호스피스는 모든 회원이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8)

● ACC/SICA 호스피스의 발자취

- 2017.2.20 제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Woodlands Nursing Home)
- 2017.1.20 제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Estia Health Nursing Home)
- 2017.1.9 ACC Home Page 개설(www.australianhospice.com.au)(영문홈페이지)
- 2016.12.31 제1회 호스피스 어머니 시상식 (수상자: 이금귀, 장지수, 장정옥)
(ACC/SICA 공동 주최)
- 2016.12.22 제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Baptist Care, Shalom Centre)
(성탄축하연합예배: ACC-Baptist Care)
- 2016.11.30 제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Summer Hill Nursing Home)
(ACC/SICA 공동 주최)
- 2016.9.26 제1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전체 24명 참가
(13명 수료)
~10.6 특별초청강사: 전재규(대구동산병원 의사/한국호스피스협회
설립자/본회 고문)
김경환(대구동산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15년경력)
- 2016.9.28 제3차 추수감사주간 음악회(Baptist Care, DHL Centre)
(ACC/SICA 공동 주최)
- 2016.9.26 호주정부 무료 First Aid 자격 교육(18명 자격 취득)
- 2016.8.20 제4차 정기총회 (장소: 모지식당(Strathfield) 오후 3시)
결의사항: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ACC)(호주 호스피스 협회) 설립(ABN: 17 110
189 115): 시드니 호스피스(SICA)는 제8차 Committee에서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CC)
를 설립하기로 의결하였고, 호주 전역으로 호스피스 사역을
넓히고자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설립을 총회에서 추진 함.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초대 임원(Committee Member)
선임: Chairperson/Public Officer(대표): 김장대 Treasurer
(재정): 송정희, Secretary(총무): 성순자, Audit(감사): 조철호
- 2016.5.9 제2차 아버지 주간 음악회(Baptist Care Shalom Centre)
- 2016.1.1 SICA Home Page 개설(www.sydneyhospice.com.au)
- 2015.12.28 제1차 성탄 송년 음악회 (Baptist Care Shalom Centre)
- 2015.10.24 제3차 정기총회 (장소: 모지식당(Strathfield) 오후 3시 30분)
결의사항: 정관에 명시된 Committee에 대한 정확한 한글
명칭이 없이 "운영위원회" 혹은 "이사회"라는 명칭으로 사용
되어 조직운영에 혼란을 가져왔으므로 제3차 정기총회 이후
한글 명칭 "이사회"를 해산되고, 정관에 명시된 "Committee"
라든 영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새로운 Committee
Member를 받기로 함. 별칭으로 AICA (Australia Institute of
Cancer Aid)를 사용하기로 함.
- 2015.9.30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과 상호교류협약 체결(MOU)
(김장대 목사 대표 자격으로 한국방문 협약체결)
- 2015.9.25 부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과 상호교류협약 체결(MOU)
(김장대 목사 대표 자격으로 한국방문 협약체결)
- 2015.8.10 사무실 이전 St Phillip's Anglican Church
(29 Clonalpine St. Eastwood NSW)
- 2015.8.8 제2차 임시총회(장소: 모지식당, 의제: 김장대 목사 대표선임)
(대표(Chairperson, Public Officer): 김장대 목사 선임, 96% 찬성)
- 2015.4.2 제2대 대표로 김장대 목사 선임(Chairperson/Public
Officer) (변종무 대표 사임)
- 2012.10.15 제1차 총회 (의장: 변종무 서기: 김영일 선출)
- 2011.3.17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orporated
명칭변경(ABN 87 157 916 417)
- 2007.8.4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시작 (1회)
- 2006.10.3 자원봉사자 정기교육 실시(1회)
- 2004.7.1 소식지 출간
- 2004.1.4 한국 샘물호스피스회 시드니회로 출범(대표 변종무 목사)

● 암환우의 필요를 도와 드립니다.

암환우 상담은 요청시 언제나 가능하며 가정 방문도
가능합니다.

- [정기상담] • 일시: 월, 화, 수요일 10:00~16:00
- 장소: 본회 사무실
- 문의: 0430 370 191 / 0416 758 272

● 콘서트 및 드라마 재능 봉사자 모집

너싱홈 환우들과 기쁨을 함께하는 음악 재능 봉사자와
드라마를 통하여 환우들의 심리적 회복과 치유를
나누고자 드라마 재능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락처 0430 370 191/0416 758 272

● ACC/SICA 호스피스와 해외협력기관

부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복음병원 호스피스 센터
(대한민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거리 박사의 사랑
과 헌신이 담긴 기독교 병원)
대구 동산의료원 호스피스회
(1899년에 미국 선교사 존슨 의사에 의해 제중원
(濟衆院)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대구 최초의 근대병원)

● 암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 대상: 암환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Circular Quay 3번 부두
- 준비물: 도시락, 물
- 연락처: 0405 317 843(송정희 리더)/ 0430 370 191

● 제 8 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 장소: Meredith House Nursing Home, Meredith St.
Strathfield, NSW
- 일시: 2017년 3월 20일 오후 2시

●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홈페이지 영어 번역

봉사자 모집
다문화 호스피스 사역을 위하여 모든 ACC 홈페이지
콘텐츠가 영어로 작성됨으로 영어번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락처: 0430 370 191/ 0416 758 272

● 본 회의 기부금은 호주정부세금감면혜택 (DGR)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 입금 계좌명 및 계좌번호

후원계좌명 (Account Name):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orporated

Bank	BSB No.	Account No.
ANZ	012-401	1859-55523
Westpac	032-069	389575
NAB	082-451	19-458-1666

* 정성어린 후원금은 호스피스(SICA)
봉사활동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소식지 1월 2017 회계 자료(January 2017 Accounting report)					
수입 (Incomes)			지출 (Expenditure)		
항목 (Items)	이름 (Name)	금액 (AU\$)	항목 (Items)	금액 (AU\$)	비고
MEMBERSHIP FEE	Young Jun Choi	120	통신비 (Communication cost)	69.35	
MEMBERSHIP FEE	Sung Taek Yoon	20	인쇄 홍보 비 (PR & PRINT)	402.2	
MEMBERSHIP FEE	In Hee Lee	10	차량유지비 (Vehicle maintenance)	44.1	
MEMBERSHIP FEE	Duk Soon Jang	50	관리비 (Administrative expenses)	66	
MEMBERSHIP FEE	Cheol Soo Song	120	식대 및 부식비 (Meals costs)	163.5	
MEMBERSHIP FEE	Ji Su Chang	20	경조비 (family event)	100	
MEMBERSHIP FEE	Yoon Sub Chung	20	1월지출 Total	845.15	
MEMBERSHIP FEE	Ok Kyung Kim	10			
MEMBERSHIP FEE	Jongse Kim (Paul)	10			
MEMBERSHIP FEE	Young Lan Song	50			
MEMBERSHIP FEE	Jung sook Choi	50			
Donation	Other incomes	42.4			
MEMBERSHIP FEE	Jung Hee Song	120			
Donation	Jeung Bun Park	50			
MEMBERSHIP FEE	Jee Haing Lee	100			
Donation	C	300			
MEMBERSHIP FEE	Soon Ja Chae	120			
MEMBERSHIP FEE	Kyung Hee Lim	10			
MEMBERSHIP FEE	Sarah Kim	50			
Donation	Yoon Sub Chung & Chang	100			
MEMBERSHIP FEE	Jangdae Kim	110			
MEMBERSHIP FEE	Soon Ja Sung	110			
MEMBERSHIP FEE	Sarang Kim	10			
MEMBERSHIP FEE	Elhis Kim	10			
MEMBERSHIP FEE	Hyun Sook Lee	100			
MEMBERSHIP FEE	Youn Hwa Kim	50			
Donation	Hae sung Lee & Chee Yeal Yoon	100			
Donation	Sydney Hospice Sydney West UBF Dec	100			
Donation	sydney light and salt	300			
Donation	Gna Solutions GNA SOLUTIONS PT	100			
Donation	Sydney West UBF MS KI JU CHUN	100			
Donation	Kim Somee	200			
31/01/2017	1월 수입 Total	2662.4			

History of ACC

20/2/2017. 7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Woodlands Nursing Home, Cherrybrook)
 20/1/2017. 6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Estia Nursing Home, Ryde)
 31/12/2016. 1st Hospice Mother's Award (Prize Winner: Keum Gui Lee, Ji Soo Jang, Jung Ok Jang)
 22/12/2016. 5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Baptist Care, Shalom Centre)
 3/12/2016. Year End BBQ Party (Manly Beach)
 30/11/2016. 4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Summer Hill Nursing Home)
 15/10/2016. Picnic (Breakheath Frower Festival)
 28/9/2016. 3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Baptist Care, DHL Centre)
 26/9/2016~6/10/2016 First Korea-Australia Volunteer Training
 First Aid Training (18 Trainees)/Graduated 13 people among 24 students
 3/8/2016. NSW Fair Trading Registry (INC1601021)
 Chairperson / Public Officer (Representative): Jang Dae Kim
 Treasurer: Jung Hee Song, Secretary: Soon Ja Sung, Audit: Cheol Ho Cho



위) 제6차 호스피스 콘서트에서 열창하시는 Sabina Yang

아래) 제7차 호스피스 음악회에서 한국전통 부채춤: 정경옥 전도사





주요 활동

삶과 죽음이란 두 갈래 길에서 어떤 치유가 지혜로운 선택일까 갈등하며 힘들어 하는 환우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합니다. 환우의 신앙과 무관하게 그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호스피스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환우의 필요를 돕기도 하지만 할 수 있다면 환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지혜로운 방향을 선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나은 치유의 효능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신 창조원리에 의한 치유방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치유되고 있는 많은 극복자를 소개해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나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바른 삶이 치유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암 환우와 그 가족을 섬깁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통역지원, 환우와 함께하기, 환우와의 상담지원, 환우와 가족을 위한 필요 돕기 등등
2. 암환우의 치유에 도움을 드립니다.
 - 투병중인 환우나 암을 극복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여드립니다.
 - 암환우의 회복에는 심리치유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암환우와 함께 웃음치유, 미술치유, 음악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암환우와 가족들을 즐겁게하여드립니다.
3. 암환우와 그의 가정의 회복을 도와 드리며 교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를 실시함으로 연약한 암환우의 건강이 회복되며 그의 가정이 소망으로 회복되는 되는데 기여합니다.
 - 암환우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바닷가 걷기를 함으로 교민사회에 봉사정신을 고취시키고 교민 사회에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합니다.
4. 호스피스 자원봉사와 성경적 의학 교육
 - 약한 자를 돕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기법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기교육과 비정기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5. ACC/SICA 홍보활동
 - ACC/SICA 활동의 홍보는 정성어린 교민들의 기부금과 교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하여 이뤄 지고 있습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호스피스 투데이(Hospice Today)"란 명칭으로 월간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 암환우에게 새소망을 주고 교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년 1회이상 특별 공연을 실시합니다.
6. 임종과 장례지원 및 남은 가족을 지지해드립니다.
 - 행편에 따라 겸손한 장례가 치러지도록 도와 드립니다.
 - 환우가 떠난 후 남은 가족들이 속히 슬픔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3월의 여유있는 삶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 '인도 독립의 아버지'이자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상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의 본명이다. '위대한 영혼'이란 뜻의 '마하트마'는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그를 칭송하며 쓴 별칭이다. 1869년 유복한 관리의 아들로 태어난 간디는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영국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하다 겪은 인종차별에 저항하면서 정치운동가로 변신했고 1914년부터 비폭력·무저항 독립투쟁을 펼치면서 본격적으로 인도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56살이던 1925년 마하트마 간디는 '청년 인도'라는 잡지에 '사회를 병들게 하는 7대 사회악'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다. 마하트마 간디가 제시한 국가 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인도가 피해야 할 7대 사회악은 다음과 같다.

▲ 원칙 없는 정치(Politics without principle), ▲ 노동 없는 부(Wealth without work), ▲ 양심 없는 쾌락(Pleasure without conscience), ▲ 인격 없는 교육(Knowledge without character), ▲ 도덕성 없는 상거래(Commerce without morality), ▲ 인간성 없는 과학(Science without humanity), ▲ 희생 없는 신앙(Worship without sacrifice) 등이다.

ACC/SICA
Australian Cancer Care Inc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

- ◎ 발행처: ACC/SICA 호스피스 협회
- 비영리 단체등록법인(ACNC):
ACC(ABN: 17 110 189 115) / SICA(ABN: 87 157 916 417)
- 주소(Add.): PO BOX 615 Lidcombe, NSW 1825
- Mob : 0430 370 191, 0416 758 272
- E-mail: australianhospice@gmail.com
or sydneyhospice@gmail.com
- Web: www.australianhospice.com.au(Eng) /
www.sydneyhospice.com.au(Kor)
- 발행날짜(Date of Issue) : 2017년 2월 23일
- 발행(Publication)/편집(Edtion): 김장대(Rev. David Kim)